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남원'

민선 9기 양충모호 남원시정 출범... "남원 새로운 도약 반드시 이뤄내겠다"

남원시 관계자는 제9대 남원시장에 당선된 양충모 시장이 7월 1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민선 9기 남원시장의 힘찬 출발을 위해 시민과 기관·사회단체장, 각계각층 인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9기 시정비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남원'으로 제시하며,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양 시장은 "시민의 선택은 단순한 한 명의 시장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남원을 살리고 정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시민과 함께 남원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경제도시는 행정의 일방적인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연대 속에서 완성된다"며 "사람이 모이고, 감동의 문화가



민선9기 양충모호 남원시장 취임식

흐르며, 시민의 삶이 따뜻한 경제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 시장은 '성과로 증명하는 시정'을 약속하며, "공직에서 쌓아온 다양한 행정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남원의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며, 검증된 실력과 중앙정부에서의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오히려 남원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국가재원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남원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에게 희망을 드릴 것이다"고 강조하며, 청렴을 민선9기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공직사회 혁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양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시청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차담을 갖고 직원들을 격려한 뒤 만민회관을 참배하는 민선 9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취임식 이후에는 주요 내빈,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시정 운영 방향과 포부를 설명했으며, 오후에는 남원향교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편 양충모 남원시장은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발걸음에 맞춰 현장을 뛰겠다"며, "시민과 함께하고 그 결실은 시민의 행복으로 돌려드리는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남원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행복 실현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가 1일 민선 9기 제51대 순창군수로 취임하며 새로운 4년의 출발을 알렸다.

"군민과 새로운 도약 이끌겠다"

최영일 순창군수 민선 9기 출범

최영일 순창군수가 1일 민선 9기 제51대 순창군수로 취임하며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를 군정 비전으로 새로운 4년의 출발을 알렸다.

최 군수는 취임식에 앞서 총흔담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참배한 뒤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통해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취임식은 기존의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민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타운홀미팅을 함께 마련해 민선 8기 주

요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할 핵심 공약과 군정 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일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민선 9기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화합, 실용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난 4년간 쌓아온 성과를 토대로 순창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정의 모든 중심에는 군민이 있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농특산품 우체국 소평물 특별기획전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우체국 소평물(mal.lepost.go.kr)'을 통해 '2026 하반기 남원 농특산품 특별기획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획전은 지역 농특산물 기업의 온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원시 약 80개 농특산물 업체가 참여하여 김부각, 추어탕 등 남원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품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증액된 2,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설·추석 명절 단기 행사 방식을 상·하반기 정기 프로모션 체계로 개편해 농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매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사 기간에는 전 고객에게 상시 5%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추석 명절 기간에는 최대 15%에 달하는 할인쿠폰을 특별 지원하고, 여기에 참여 업체별 자체 할인까지 동시 진행되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

제48대 임실군수 한득수호 출범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군민주권의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1일 제 48대 임실군수로 한득수호(號)가 본격 출범하면서 군민주권의 새로운 임실시대 도약을 위한 첫 출항에 나섰다.

이날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득수 제48대 임실군수는 민선 9기 임실군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취임식에는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필경농악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예배, 취임선서, 취임사, 민선9기 비전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 군수는 취임식에 앞서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참배하고, 군민을 위한 책임 있는 군정 수행을 다짐했다.

취임사에서 한 군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변화와 혁신을 염원하는 군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 덕분"이라며 군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군정의 핵심 정책도 제시했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필수 공공의



민선9기 제48대 임실군수 취임식

로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성 질환 중심의 1차 의료기관을 확충해 군민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소득 신농종을 보급하고, 임기 내 농업 예산 비중을 25%까지 확대하는 한편, 행정·의회·농협·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학교 모델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문화·체육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문화예술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는 군민 정책참여 창구인 '소통광장'을 운영하고,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군민이 주인되는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선9기 핵심목표인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국 규모의 이동장연 수원 건립 사업 △KTIX임실역 정차를 위한 시설 개량사업비 △육정호 순환도로 등 총 1천여 국비확보 △새만금 현대차 9호 투자 임실 연계사업 △일진제강 연계한 피지컬 AI산업 핵심배후도시 육성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을 마친 한 군수는 군정으로 이동해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한 뒤 제1호 결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처리하며, 민선9기 본격적인 군정업무에 돌입했다.

한득수 군수는 "민선 9기 임실 군정은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와 혁신의 여정이 될 것"이라며 "군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통해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10대 순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순창군의회는 1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재직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오수환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김정숙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이어 열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행정복지위원장에 이상용 의원, 경제산업위원장에 조태봉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오수환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소통과 화합의 의회를 만



제10대 순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들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 제시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제10대 순창군의회가 성숙하고 내실 있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남원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상·하반기에 걸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150대와 전기화물차 98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전기승용차 60대, 전기화물차

36대 등 총 96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은 7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이 놓였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높여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